

오피니언

데스크 시각

김미은



삭막한 도심에 공원이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일이다. 그래서 회사 인근, 옛 한국 은행 광주본점 자리에 위치한 금남공원을 지날 때마다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금짜리 땅에 건물을 옮리는 대신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몇 전 놀라간 일본 요코하마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소는 요코하마 페리국제터 미널이었다. 특히 가을 햇살을 맞으며 앉아있었던 육상은 따뜻한 질감의 나무로 짜여져 있어 느낌이 특별했다.

도심의 풍경을 바꾸다

필자가 갑자기 금남공원과 요코하마 페리 선착장을 함께 떠올리게 된 건 지난 2월부터였다. 동기는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진행한 어번폴리(Urban Folly) 프로젝트, 총 예산 22억 원을 들여 10곳에 세운 어번폴리는 도미니크 페로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한 국제적 프로그램이다.

금남공원 어번폴리 설계를 맡은 사람이 바로 요코하마 페리선착장을 설계한 알레한드로 자에라 풀로였다. 그래서 '공간'과

'건물'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줬던 그가 필자가 살고 있는 곳에 어떤 행복을 전해줄지 기대가 커다.

특히 이번폴리 프로젝트는 주관처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지만, 강운태 시장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인터라 첫

어번폴리, 당신의 평가는?

번체 성과물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다.

지난 1일 모습을 드러낸 어번폴리는 광주시의 기대대로 확실히 도심의 풍경을 바꿔놓았다.

밤에 장동로터리를 지나다 보면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후안헤로스 작품에 자연스럽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의 한 가로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광주세무서 앞을 지날 때면 조형물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와 기분이 유쾌해진다. 옛 광주MBC자리에 세워진 나더테라니의 작품은 '5·18 기념 표지석'을 모티브로 삼아 기억속에서 사라져가는 '오월 광주'를 다시 그립어 내어준다.

반면 주변과 어우러지지 못하고 고개를 가로거리게 하는 작품들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커던 만큼 알레한드로의 작품이 아쉬웠다. 금남공원은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회색 도심의 숨구멍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갈색의 둔탁한 조형물이 들어서면서 주를 기운을 뿐만 아니라 구멍을 막아버린 느낌이었다. 초록색에 익숙해진 눈에 검은 안대를 쓴 기분이랄까.

이 작품은 광주 종장로 축제와 관련 있는 조형물로 생각하고 축제가 끝나면 철거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

았다. 영구 조형물이라는 설명에 '숨이 막힌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었다.

황금동 콜박스 사거리에 위치한 조형물은 주변 환경이나 통행 여부와 상관 없이 독아정정이다. 훨체어를 타는 인자는 바닥에 너무 높게 울퉁불퉁한 턱을 만들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하소연을 했다. 중앙의 둔근 원형 조형물은 차량사고까지 유발시키고 있다.

결국 사고와 작품 훼손을 우려해 작품에 교통 통제 때 사용하는 빨간 꼬깔봉을 세워둔 상태다. 분명 답사를 했었을텐데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까 아쉬운 대목이다.

또 총파 앞 피터 아이젠만의 작품은 충분한 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철거 구조물만 남은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몇몇 조형물이 난맥상을 드러냈던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 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 무시한 작품 아쉬워

솔직히 '건축계 거장'이라는 수식어는 감히 평가를 할 수 없게 만든다. 문제 제기하는 이들은 심미안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폄하하는 일부 목소리도 들린다. 물론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이 한 도시, 그것도 약 1km 반경안에 자리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도시의 주인공은 건물이나 조형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광주를 가장 잘 아는 이는 바로 광주 사람이다. 행여나 세계적인 예술가라는 이름에 놀려 다양한 의견들이 그대로 묻히지 않기를 바란다.

시의 계획대로 10년간 100개의 풀리가 들어설 경우 광주는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된다. 하지만 외형적 성격에만 급급해 충분한 소통과 논의 과정 없이 다급하게 일을 추진한다면 금납로 조각상이나 루미나리에 처럼 애물단지 조형물들이 들어설지도 모른다. 성공사례라는 축포 대신 냉정한 평가와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때다.

〈문화부정〉 mekim@kwangju.co.kr

시설

'에이스 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야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국내 유일의 문화콘텐츠 박람회인 '에이스 페어(국제 문화창의산업전)'가 아시아 대표 문화 콘텐츠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4일간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에이스 페어 2011'에 40개국, 330개 기업이 참가해 921건(2억 3621만 달러)의 수출상담을 기록하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홍보 부족 등으로 일반인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한 점은 아쉽다. 대다수 시민들은 에이스 페어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대회 운영 미숙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다.

에이스 페어가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인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IA)나 로스앤젤레스의 국제가전제품 박람회(CES)와 같은 국제적인 박람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기업 유통이나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다.

반값 등록금 언제까지 공염불만 할 건가

광주·전남지역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의 '반값 등록금'을 위한 학내 집회와 거리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반값 등록금' 이행 쟁취를 위한 동시다발 촛불집회와 풍랑 휴업이 29일로 예고된 상황이어서, 이번 대학가의 시위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공부하고 고민해야 할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거리에 나서는 것은 그들에게 처한 상황이 너무도 심각하다는데 있다. 광주·전남지역만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4169명으로, 100명 중 3명에 달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라는 명에까지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각 대학들도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다 아니라 스스로 등록금 인하에 나서야 한다. 적립금만 수천 원씩 쌓아놓고 천정부지로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갈취'나 '다름없는 일이다.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거리로 나를리는 사회는 결코 정상일 수 없다.

無等鼓

"빛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굳이 빛보다 빨리 달려봐야 모자람 벗겨질 뿐,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미국의 코미디언 감독 우디알런(Woody Allen)의 말이다. 빛이 가장 빠르다는 확신, 빛보다 빠른 무엇이 있다 라도 사람들은 벌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나름의 판단이 담겨 있다.

하지만, 코미디 감독의 얘기가 결국은 코미디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입자물리 연구소(CERN)의 과학자들이 최근 빛보다 빠른 물질을 발견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지난 3년간 중성미자(뉴트리노)라고 불리는 물질을 진공 속에서 722km의 거리를 달리게 한 결과, 빛의 속도보다 60나노초(0.00000006초)가 더 빨랐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빛의 속도는 그 어떤 물체도 넘볼 수 없는 궁극의 속도'이자 절대속도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금이 가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빛의 속도를 넘어서면 시간여행이 가능하고,

물리법칙으로는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굳이 빛보다 빨리 달려봐야 모자람 벗겨질 뿐,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과거든 미래든 갓다가 되돌아올 수만 있다면, 인류의 신기원이 벗겨질 것이다. "시간여행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별로 실용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세계적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의 예언이 맞을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빛의 속도를 '절대 속도'로 생각해 온 기준의 가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이었을 가능성이 배제 할 수 없게 됐다.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

작자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의 예언이 맞을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빛의 속도를 '절대 속도'로 생각해 온 기준의 가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이었을 가능성이 배제 할 수 없게 됐다.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

역시 인간세상을 해석하고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이론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질이 존재하든, 기준의 절대속도가 잘못된 것인 듯 중의 하나가 사실이라면 인류역사는 종대 기료에 서게 될 것이다.

/총행기 경정부 저장:redplane@kwangju.co.kr

온펜칼럼



박홍근

양립동은 광주 근대건축·역사박물관이다

로우 흘(1927), 수피아 옛 강당(1935)과 전통주택인 이장우 가옥(1899), 최승효 가옥(1920) 등에는 오랜 역사의 기억들이 세월의 켜 속에 녹아 있다. 참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자산은 멋스런 골목길과 좁은 도로, 넓은 마당과 함께하며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건물들이 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이는 선으로 연결되고 이게 전 지역으로 확산된 양립동은 광주 근대건축과 역사의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양립동은 2008년부터 광주시에서는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것을 추진하여 1차 사업인 순교자 기념공원 조성사업(선교사 묘역정비 및 우월순 사택 보수 등)을 끝냈고, 2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결과물과 추진상황으로 판단해보면 '역사문화마을'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은 공유하는 것 같은데 이를 '광주 원화원(1911), 오기원 기념각(1914), 배유지 기념 예배당(1924), 우월순 선교사 사택(1927), 윈스보

인가에 대한 담론형성이 부족하고 둘째는 설계와 시공발주 방식이 비문화적인 토건국가적·행정편의적으로 집행되고, 세째는 시행기관과 감독기관 간의 연속성·전문성·지속가능성이 부재 등의 문제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종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광주비엔날레 준비에 총감독이 있는 것처럼 양립동 역사문화마을을 가꾸는데 총감독(MP, Master Planner)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종체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이곳에 어울리는 디자인 컨셉을 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실행 사항이 설계와 시공 발주방식에 대해 관여하며, 그 결과물을 감독할 MP가 있어야 한다.

둘째, 당당 공무원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능력은 출렁하다. 그런데 그 업무에 대해 알면하면 이동을 한

그러다 보니 늘 개념의 공유와 연속성이 부족하게 되고 능력을 발휘할 틈이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알맹이 없는 겹질만 양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셋째, 지역주민참여를 통한 지속성이 필요하다.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과 장소의 주인만이 아닌 양립동에 거주하는 주민 다수가 역사문화마을을 가꾸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문화유산을 연결하는 골목과 좁은 도로와 이에 접한 마당 등이 문화적으로 가꿔질 수 있다. 그래서 양립동 전체가 하나의 완성된 마을이 될 수 있다.

기존 것을 고치고, 새 건물과 가로시설물을 만들어 추가하고 꾸미는 것을 단발적이고 단세포적으로 진행한다면 이 지역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부조화, 불만족, 부적절하게 될 수밖에 없다. 후손과 함께 향유해야 할 광주에 유일한 근대건축과 역사문화의 애정과 박물관인 양립동 일대가 성공적으로 보존되고 유지·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건축사·전남대 겸임교수〉

온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온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박용수

대학 입시 추천서 유감

감추어야 있다. 추천서를 가지고 오는 학생은 결혼 청첩장을 들고서 주례를 부탁하는 것처럼 반가운 일일 것이다. 교사의 보람이자 자부심이 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한둘이 아니고, 게다가 한 학생에게 여러 학교의 지원서를 쓰는 등, 하루에만 몇 개의 추천서를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수업에 부실하게 된다.

게다가 일부 학생은 추천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추천서를 내밀며 생애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다. 팩트를 팩트대로 쓰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는 써주고 누구는 써주지 않을 권리가 교사에게 있는가.

또한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하라고 대학 측에서 요구하지만 추천서 개념 자체가 긍정의 글이기 때문에 부정인 사실을

쓰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마음을 다잡고 추천서를 마주하면 질문지 앞에서 또 한 번 길게 흐름을 가다듬어야 한다. 1000자 내외로 적으라는 몇 개의 질문지, 총 3000자 내외의 답변을 해야 하는 질문지가 그것이다.

길지 않는 기간 40여 명의 학생을 상대한 교사로서 그 학생에게 특별하게 애정을 쏟아온다 할지라도 추천서의 분량을 체우는 일은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다.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작은 일은 부풀려 포장하거나 심지어는 학생들에게 계묘를 작성해 오도록 하는 등, 진정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추천이란 어디까지나 추천 대상을 두고 추천을 받는 사람과 추천하는 사람이 서로 안면이 있고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실시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추천서에 대한 명명한 신뢰도 없고 추천을 받는 교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 난해하고 괴이를 말리기 하는 굴레로부터 교사들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광주동신여고 교사〉

농기계 등화장치 통일, 빈번한 교통사고 예방해야

농촌 지역의 도로변에는 농기계가 많이 다닌다. 종종 고향에 보면 야간에 운전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인다. 커브길 같은 데를 돌아가 실수라도 하면 농사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는 농기계를 뒤에서 그대로 받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는 이양기, 품바인, 경운기와 같은 농기계에 등화 장치를 꼭 달고 점등을 해서 운전을 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

크기, 모양, 등불의 색깔도 다르다.

그러다 보니 농촌 도로를 달리는 일반 차들의 운전자들이 그 불빛을 보고 구분을 하기 힘들다.

필자 의견으로는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부착 위치와 크기, 색깔, 빛의 밝기 등 규정을 만들어 반드시 그 기준에 맞도록 의무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때 농촌 도로에서 농기계를 만날 경우 서행하고, 농기계에